

영암군 '4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속도낸다

<생명, 문화관광·스포츠, 바둑, 드론·항공>

중장기 계획수립 보고회... 2020년까지 예산 1930억 투입

중자원 벼 정선시설 내달 착공, 트로트가요센터 설계 공모

영암군이 올해부터 지역의 미래가 걸린 '4대 핵심전략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통평 영암군수는 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자동차 튜닝산업 등 4대 핵심발전 집중 육성해 지역 미래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7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지역 4대 핵심발전 사업은 총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19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올해에만 국립중자원 정선시설 건립 등 국비 320억원을 비롯한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등에 민자 200억원 등 총 772억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선두주자는 생명산업인 국립 중자원 벼 정선시설이다. 벼 정선 처리능력 2000톤 규모의 정선시설이 연면적 2만9995㎡ 규모로 오는 3월 착공된다. 군은 벼 정선시설 배치에 따라 벼 보급종 재종포 시범계약재배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600ha로 확대한다.

영암군은 특히 전국 12대 쌀 브랜드에 7회나 선정된 달마지쌀 골드를 중심으로 쌀산업 특화발전을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DSC)·저온저장고·육묘장을 신축하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25억원의 장려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삼호 무화과와 금정 대

봉감, 전국 제일의 황토고구마, 영암 배, 도포 멜론 등 우수 농·특산물의 마케팅 전략도 강화한다.

무화과 산업특구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삼호읍 일원에 30억원 규모의 무화과 6차 산업화 지구를 조성,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무화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2020년까지 132억원을 투자한다.

영암군은 또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번달내로 100억원 규모의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며, 38억원이 투입된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 하우스도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군은 올해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한 내실도 다진다. 2018년 제57회 전남도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목표로 주경기장과 중목별 경기장 개·보수와 실내체육관 노후 시설 개선에 1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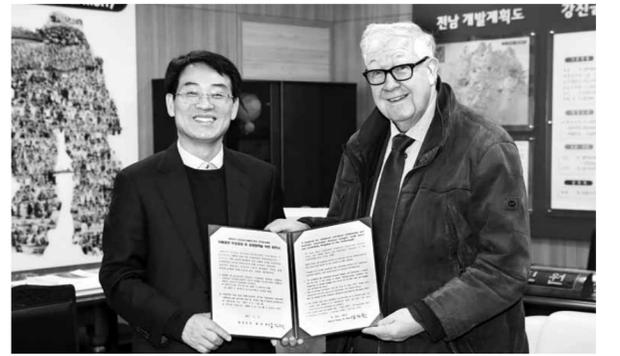
영암군은 바둑산업의 조속도 견고히 하

고 있다. 영암군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총 400억원 규모의 세계바둑박물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하고, 7월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사전평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군은 또 오는 7월에는 조현현 국수 기념관도 개관한다.

영암군은 올해 드론·항공·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산업은 호남권 최초로 추진중인 드론전문교육원 건립 사업이 조만간 국토교통부의 현지실사 및 인가 등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드론 연구와 제조·정비, 체험시설을 갖춘 드론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도 오는 4월 완료된다.

전통평 영암군수는 "올해는 군민행복시대를 넘어 더 큰 미래를 위한 힘찬 비상을 할 수 있도록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통평기자 jbh@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강진군을 방문한 네덜란드 에버트 반 스프라켈라 호르킴시 교류담당 및 하멜기념관장과 교류협약을 맺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방문의 해' 네덜란드도 함께 한다

자매도시 호르킴시 관계자 방문 교류·홍보 협력

강진군 자매도시인 네덜란드 호르킴시 관계자들이 지난 9일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을 홍보하고 상호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 강진을 방문했다.

"하멜 표류기"로 널리 알려진 헨드릭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르킴시는 지난 1998년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하멜과 관련된 물품 등을 상호 기증 및 전시하는 등 문화 교류를 통해 두터운 우애를 다지고 있는 도시다.

강진을 방문한 에버트 반 스프라켈라 호르킴시 교류담당 및 하멜기념관장은 "네덜란드에서 호르킴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 및 각종 문화 전시회에서 강진의 청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1년 사이에 더욱 새로워진 강진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감성여행의 1번지 강진을 네덜란드에 더 자세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호르킴시는 오는 6월 벨트하위엔 시장을 단장으로 해 도시계획과 홍보 및 경제 분야 공무원들과 함께 무역 사절단을 꾸려 강진을 방문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멀리 네덜란드에서 방문한 친구가 향유 강진 발전을 위한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6월에 있을 무역사절단의 강진 방문에서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강진투어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

21일부터 5일간... 선수·임원 등 1천여명 참가

제64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강진군 전역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강진군이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며, 매년 국내에서 사이클 시즌 개막을 알리는 첫 대회다.

겨울동안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쌓아온 700여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해 열린 은빛 레이스를 펼친다. 올 한해 어떤 선수가 두각을 나타낼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모인 남녀 선수들은 강진 우시장 앞을 출발해 158km에 이르는 개인도로경기 2회와 대회 넷째 날 강진산업단지에서 실시하는 크리테리움 경기가 지 총 3차례 레이스를 펼친다.

비교적 짧은 1.7km를 20회, 총 34km를 왕복하는 크리테리움 경기는 종목의 특성상 평균 주행 속도가 50km 이상을 유지해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특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300명이 참가하는 1부 스페셜리그 78km, 2부 DMZ리그 52km를 경향한다.

강진군은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첫 전국 규모 대회인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3일부터 대회가 치러지는 전 구간을 점검해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고 청소를 실시했다.

강진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200명의 인력을 투입, 교통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영암 왕인문화축제 4월 6~9일 열린다

올해 20회를 맞는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오는 4월 6~9일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 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 영암군 일대에서 열린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향토축제 추진위원회는 '왕인의 빛! 소통·상생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83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축제 대표행사인 '왕인박사 일본 가오' 퍼레이드는 왕인박사의 행적 중 상징적 사실인 도일(渡日)의 역사를 뮤지컬 공연과 주민, 관광객의 참여로 삼기한다.

20회를 기념해 왕인문화축제가 걸어온 길을 주제로 축제 전문가, 역사 분야 교수들이 강연회를 연다. 행사장 입구에는 축제 연혁, 왕인박사 일대기, 일본과의 교류 등을 만화와 영상으로 구성해 선보인다.

'인물축제'의 한계를 지체했던 체험·놀이성 행사를 확대해 '난장놀이마당', '풍류놀이 한마당' 등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월출산 생기(生氣) 체험, 기찬건강 내 몸 바로 알기, 기찬밧길 트레킹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백제, 일본, 다문화 의상과 민속놀이 체험도 늘렸다.

/영암=전통평기자 jbh@



장흥군수 '체험 삶의 현장' 김성(왼쪽) 장흥군수는 최근 회원면 장산어촌계를 찾아 어민들과 함께 매생이를 수확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수 체험 삶의 현장'이란 주제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군수가 직접 어촌마을의 생활 현장을 경험하고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쌀귀리 명품화 박차 30억원 들여 보관·도정시설 등 지원

강진군이 세계 10대 식품 중 하나로 강진의 대표 농산물인 쌀귀리를 명품화하기 위해 향토산업 30억원과 귀리전용 보관시설 2억원 및 도정시설 등을 지원한다.

강진이 재배하는 쌀귀리는 성숙 후 껍질(영)이 종실에서 잘 벗겨지는 귀리로 흔히 오토밀이라고 한다. 강진에서 재배되는 쌀귀리 재배면적은 492ha로 전국 1,200ha의 41%, 전산 520ha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강진은 지난 2011년부터 쌀(두보)식품과

협약을 맺고 동절기 소득작목으로 귀리를 계약재배 해 전국 식품매장에 강진산 쌀귀리를 가공·판매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7년을 농업인들이 생산한 귀리를 명품화하기 위해 한들농협에 귀리 전용 보관시설 신축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소규모 귀리도정시설을 꾸준히 확보해 그동안 군민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쌀귀리를 누구나 쉽게 구매하고 대도시 소

비자에게도 판매 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 지난해 쌀귀리명품화사업을 향토산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 30억원을 귀리를 제품화할 수 있는 가공공장 설치 및 대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귀리 기능성 연구 및 상품개발,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을 통해 강진 대표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청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동구 금동 오피스텔

대지 216평 최저가 2,132,000,000
건물 467평 최고가 1,492,000,000

회산 도곡 숙박시설

대지 980평 최저가 992,958,000
건물 1,296평 최고가 3,787,938,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백운동 빌라주택

대지 66평 최저가 174,499,000
건물 146평 최고가 311,605,000

빛그린산업단지

매매 160,000,000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183-68

면적 1,600평 매매 340,000,000
지목 과수원(자연녹지)
나주역신도시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